‘60돌’ 동국대 박물관에 부처님들 나투셨네



개관 6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
돈관 스님 등 100여 대중 참석
10월11일~12월26일 전시 진행
‘목조관음보상’ 복장물 첫 공개
수집 소장품 50여 점 엄선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개관 60주년을 맞은 동국대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임영애)은 10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개관 60주년 기념 특별전 ‘동국(東國)에 오신 부처님’ 을 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963년 개관 이후 수집한 소장품 가운데 50여 점을 엄선해 한자리에 모았다.

‘동국에 오신 부처님’ 은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도입부 ‘박물관, 60년 역사를 시작하다’ 에서는 60년간의 동국대 박물관의 발자취와 초대관장 故황수영 박사의 조사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1부 ‘재료, 구별해서 이뤄내다’ 에서는 돌, 나무, 흙, 금속 등 재료에 따라 불교 존상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 2부 ‘불교 존상, 다채롭게 담아내다’ 는 불상,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 다양하게 전개되는 불교의 존상을 조각과 불화 작품을 통해 선보이며, 3부 ‘불복장, 신성한 생명력을 불어넣다’ 는 불상의 복장을 살펴 불상 제작자들이 불상에 신성성과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620년 조성 ‘목조관음보살입상’ 의 복장을 최초로 공개한다. 이 보살입상의 복장에는 조성기를 비롯해 후령통, 오곡, 오방경 등이 잘 남아있으며, 인삼도 함께 발견되어 당시 불상 복장에 납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려시대 보현행원품 변상도 가운데 유일하게 역경 장면이 묘사된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1390년), ‘목조아미타삼존불감’ (1637년), ‘영산회상도’ (1777년) 등 명품 유물들도 함께 선보인다.

전시에 앞서 10월 10일에는 주요 내 · 외빈과 함께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윤재웅 동국대 총장,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 최승천 문화재청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처음 공개되는 목조관음보살입상 복장을 살피고 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 박물관은 지난 60년 동안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연구 · 보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이번 특별전은 그간의 노력들을 전시로써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를 함께 하는 관람객들 마음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동국대 박물관은 불교 종립대학의 유일한 종합박물관으로 불교문화유산을 연구하고 교육으로 후학을 양성해왔다”면서 “이번 특별전은 박물관의 60년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동안 수집한 다채로운 불교 성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라고 기대했다.

동국대 박물관장을 지낸 최승천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동국대 박물관은 소장 유물의 가치와 수량만을 놓고 보면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박물관”이라며 “동국대 박물관이 더욱 일신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애 동국대 박물관장은 박물관 소장 성보들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쓸 뜻을 밝혔다. 임 관장은 “전시 제목인 ‘동국에 오신 부처님’에서 ‘동국’은 동국대와 한국을 의미한다. 전시를 통해 부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학교에 오셨는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현재 박물관은 국보 2점, 보물 8점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장으로서 우수한 성보를 선별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국대 박물관은 故황수영 박사를 초대관장으로 1963년 9월 1일 개관했다. 1960년대부터 임강사지 발굴을 시작으로 성주사지, 분황사 등 전국 사찰 및 사지를 조사했다. 1970년에는 울산 반구대 · 천전리 암각화를 처음 발견 · 조사해 선사미술 연구에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

“통도사는 차의 종가…最古 차밭 있었다”

통도사, 제1회 차문화학술대회
茶시배지 지리산 아닌 통도사
차문화史 자장율사代로 수정을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9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1회 통도사 국제 차문화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차 문화의 시발점은 신라의 대신이었던 대렴(大廉)이 흥덕왕 3년(828)에 차(茶)종자를 지리산에 심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게 정설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라의 차는 9세기가 아닌 통도사 창건 당시인 7세기에 이미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는 10월 9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제1회 통도사 국제 차문화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중국, 일본, 대만 등 국제 차 문화에 대한 역사와 불교의 관계성을 고찰했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차 시배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는 “신라의 차는 그 이전 선덕여왕(606~647) 때부터 이미 있었고, 한국의 차는 대렴의 9세기가 아닌 7세기 때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교수는 “한국 차문화의 태동을 알리는 가장 오래된 차밭은 통도사가 가지고 있었다. 통도사는 한국에서 ‘다지종가(茶之宗家)’ 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며 “한국의 차 시배지가 지리산이 아니라 통도사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통도사가 차 시배지라는 증거는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에 있다. 자장(慈藏, 590~658)율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한 것은 643년이며 646년에 통도사를 창건했다. 자장의 제자 조일 스님이 다소촌(茶所村)에 거주했고, 이는 통도사의 차밭은 적어도 창건 당시부터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7세기 신라의 차밭이 있었다는 것이다.

통도사의 차 기록과 전승에 대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 노 교수는 “한국차의 역사를 무릇 180여 년이나 앞당길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의미”라며 “신라의 주요 차생산지를 추정할 수 있고, 역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관검평 교수(중국절강농림대가 ‘중국 고대사회와 불교의 차문화’ 를, 키즈소센 교수(일본 무사노코지센케류)가 ‘견당사와 일본의 끽다문화’ 를, 여순덕 연구원(대만 중앙연구원)이 ‘대만 차의 기원’ 을 발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진실 조명

봉려관불교문화硏 ‘근대 제주불교사’ 학술세미나

10월 21일 제주 테크노파크서
‘근대 제주불교사’ 진실들 조명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달)은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 테크노파크(벤처마루) 10층 1001호 세미나실에서 ‘근대 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Ⅲ’ 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제주불교의 활동상을 살핀다.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는 ‘일제강점기 제주불교 인물 연구’ 를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불교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핀다. 제주 쌍계암 상민 스님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의 성격 조명’ 을 통해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관련 사업의 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을 통해 ‘정구용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을 새로 번역 · 교감해서 공개하며, 정구용의 판결문서 9건도 함께 대중에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깨달음, 예술로 형상화하다

한국불교미술협회, 제31회 협회전
10월 18~24일 세종문화회관 2관



김선희 작가의 ‘아미타정토도’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선희)는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2관에서 ‘각(覺) · 각(各) · 형(形) · 상(像)-깨달음의 서로 다른 표현’ 을 주제로 31번째 협회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선희 등 회원 작가 12명의 부스 전시와 회원 작가 32명의 작품 발표 전시로 진행된다. 특별 세션으로는 MZ세대 작가와 선배 중진 작가들의 교류전도 진행된다.

김선희 한국불교미술협회장은 “한국불교미술협회는 훌륭한 작가들의 지혜를 모아 불교미술 대중화를 통한 포교 방안이라는 취지 하에 불교미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전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국불교미술협회는 ‘K-불교미술’ 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 옥스퍼드대학교 인문교양 시리즈 ★

매 순간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시크릿,
삶의 ‘격’을 높여 주는 영성에 관한 교과서!



내 삶을 완성하는 영성에 관한 모든 것

영성이란 무엇인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
한 단계 더 높은
삶의 차원을 향해
영적인 삶,
영적 능력을 계발하라!

필립 셸드레이크 지음 | 한윤정 옮김
216쪽 | 16,000원 | 불광출판사

“영성은 어떻게 인간 정신이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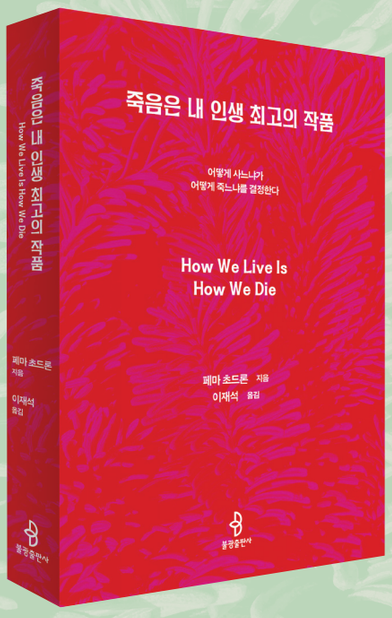
Spirituality: A Very Short Introduction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고
인생의 태도로 죽음의 차이를 만드는 기적 같은 지혜!

죽음은 내 인생 최고의 작품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영적 스승으로 존경받는 페마 초드론이
티베트불교에서 발견한 삶과 죽음의 찬가(讚歌)이자,
영혼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아마존 베스트셀러!



페마 초드론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을 완성한 최초의 미국인이자 ‘마음 전문가’
‘왓킨스 북’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북미 지역 첫 티베트불교 도량인 감포 사원(Gampo Abbey) 원장

페마 초드론 지음 · 이재석 옮김 | 336쪽 | 20,000원

© christine alicino